

Spain /  
Latin America

## 이야기를 들려주는 논쟁적인 작가 리고베르타 멘추의 동화

송병선\_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최근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은 아마도 과테말라의 리고베르타 멘추일 것이다. 199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지성계를 뒤흔든다. ‘스톨-멘추 논쟁’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논쟁은 1998년 12월에 미국의 인류학자 데이빗 스톨이 멘추의 증언록인 《나의 이름은 멘추》가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논쟁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다.

이 논쟁은 스톨의 옹호자들이 멘추의 위증혐의를 밝혀내고, 멘추의 옹호자들은 위증혐의를 밝혀낸 스톨의 비판 의도가 무엇 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80년대 말부터 미국대학에서 전개된 교육과정 개편, 즉 보수와 진보학자들의 문화투쟁에서 접근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나의 이름은 멘추》는 자문화중심주의에 도전하는 텍스트, 상이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조명하는 교재, 또는 라틴아메리카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 반정부 사회운동과 혁명적 조직활동을 다루는 지역학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른바 ‘정진’의 범위를 전통적인 서구고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혹은 비서구의 저자들까지 확대하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운동’ 덕택이었다.

반면 보수진영은 이런 새로운 텍스트들이 미국 교육계에서 수용되는 시대적 조류를 문제삼아 왔다. 이런 측면에서 스톨-멘추 논쟁은 보수진영의 이의제기와 진보진영의 정전탈피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듯 최근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리고베르타 멘추가 금년 9월에 멕시코시티에서 자신의 두 번째 동화책 《꿀 컵》을 출판했다. 세상의 기원에 관한 마야의 전설을 모아놓은 이 책은 마야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테말라의 국가문학상 수상작가인 단테 리아노와 함께 쓴 이 책을 멘추 자신은 ‘가족 및 공동체의 주변’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며, 마야 원주민들의 구전전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이 책도 《나의 이름은 멘추》처럼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기록 동화물이며, 스톨-멘추 논쟁의 핵심이었던 문화투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멘추의 첫 번째 동화책은 2001년에 출판된 《치멜의 소녀 리민》이다. 자전적 기록으로 가득찬 이 책은 오래 전에 과테말라의 치멜에 리민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할머니는 리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소녀는 자라면서 숲과 식물들과 그 정령들을 접하게 되고, 그 지역의 동물들을 알게 되며, 꿀을 채취해서 이웃사람들과 나누어 먹곤 한다. 그녀는 나중에 리고베르타 멘추라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이번에 ‘어린이 알파과라’에 의해 출판된 《꿀 컵》 역시 1960년대에 멘추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들었던 마야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어린이가 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꿀을 놓을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리고베르타 멘추는 밝히고 있다.

“《꿀 컵》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꿀을 강이나 오래된 고목에 맡겨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전자게임, 즉 닌텐도와 함께 방학을 보내는 대신, 시골로 가서 모닥불을 피고 별을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추는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치멜에 사는 소녀의 눈으로 서술한다. 멘추는 어린이 책을 쓰면서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40여 년 간 살아오면서 보았던 현실세계의 비극과 죽음과 고문 등이 조화와 공존과 가치를 찬양하는 어린이의 세계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고베르타 멘추는 세상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그녀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살아 있는 마야의 세계관과 그들의 예술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글**

France

## 100주년 공쿠르 문학상 ‘깜짝 발표’ 로 프랑스는 지금 축제 분위기

박해현\_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프랑스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공쿠르 문학상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생일잔치를 약간 요란스럽게 치렀다. 100주년 수상의 영광은 장편소설 《브레히트의 정부情婦》를 쓴 자크 피에르 아메트에게 돌아갔다. 수상자 발표는 지난 10월 21일 공쿠르상 심사위원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식기로 식사하면서 토론을 벌이는 파리의 레스토랑 드루앙에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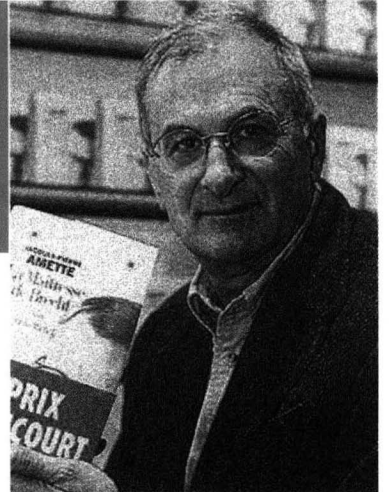
수상자로 발표된 아메트는 시사 주간지 <르 푸앵>의 문학담당 기자이면서, 30여 년 동안 시 소설 희곡 비평 분야에서 두루 활동해 온 전방위 문인이다. 그는 처음에 회사동료로부터 공쿠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장난’으로 웃어 넘겼다고 한다. 공쿠르상 심사위원단은 매년 독회 때마다 걸려진 수상후보작 명단을 공개하기 때문에, 아메트는 《브레히트의 정부》가 4차 독회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쿠르상 발표가 11월 3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의 축하인사를 실없는 소리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알맹 미셸 출판사의 편집자로부터 수상소식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는 “수정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상자마저 반신반의하다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듯이, 문단과 언론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수상자 발표를 앞당긴 공쿠르상 심사위원단의 ‘깜짝 쇼’는 대성공을 거뒀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공쿠르상이 올해에는 왜 그런 소동을 연출했을까. 프랑스에는 크고 작은 문학상이 약 1,500개나 된다. 공쿠르상을 비롯한 유명 문학상들은 주로 10월 말 이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매년 9월이면 400여 편의 장편소설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프랑스 출판의 예외적 풍경은 한

마디로 공쿠르상 심사위원들에게 읽히기 위한 과당 경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공쿠르상 외에도 아카데미 프랑세즈 문학상, 페미나상, 메디치상, 르노도상 등이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꼽히고 있고, 한국의 프랑스 문학 애독자들에게도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다. 원래 아카데미 프랑세즈 문학상이 10월 23일, 페미나상이 27일에 각각 수상자를 낼 예정이었고, 공쿠르상은 11월 3일에 발표한다고 선포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메트의 《브레히트의 정부》를 일찌감치 지목했던 공쿠르상의 심사위원 대다수는 이 작품이 아카데미 프랑세즈 문학상의 유력한 수상후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고민하다가, 수상자 발표를 2주일이나 앞당기는 ‘거사’를 단행키로 했다. 심사위원들은 100주년 수상작이 될 《브레히트의 정부》가 다른 문학상에 선점당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문학상 내부의 목계를 깨는 무례를 범하고서라도 100주년의 잔치를 남다르게 치르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다. 심사위원들은 10월 21일 5번째 독회를 갖고 최종심 후보작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수상자 결정을 위한 투표 끝에 《브레히트의 정부》가 10명의 심사위원들 중 7명의 표를 얻었다.

《브레히트의 정부》는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연극을 이끌었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생의 말년에 펼쳤던 창작활동과 불륜의 사랑을 그렸다. 이 소설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던 브레히트가 종전 직후 베를린의 동독 지역으로 귀환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브레히트 부부를 맞는 동독 사회주의 예술가 동맹의 친구들이 주변 인물들로 속속 등장한다. 그리고 브레히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배우 마리아 아이크를 만나고, 자신의 희곡 <안티고넨>에 주연으로 출연키로 한 그녀와 사

아메트는 이 소설에 대해.....“정치가 너무 가까이 가려고 했던 한 지식인의 비극”.....이라며 “이 소설이 20세기의 위대한 극작가였던 브레히트의 희곡을 읽거나.....다시 읽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 100주년 공쿠르 문학상을 수상한 《브레히트의 정부》의 저자 자크 피에르 아메트.

랑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는 예술가들을 내세운 통속 연애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이 소설은 점차 역사와 개인의 운명이 맺는 비극적 관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제시한다. 브레히트의 연인이 된 여배우는 비밀경찰 슈타지가 브레히트를 감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첩자였다는 설정이 소설의 밑바탕을 이룬다. 그 여배우는 나치에 협력했던 집안의 비밀을 숨긴 채 더욱 더 동독 체제에 협조해야 했고, 브레히트에게는 거짓말을 꾸며낸다. 그 여배우는 나치의 전체주의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 체제에서 새로운 삶을 희망했던 전후 동독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재기의 욕망이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서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가 짙은 것은 아닐까라고 이 소설은 묻는다. 아메트는 이 소설에 대해 “정치가 너무 가까이 가려고 했던 한 지식인의 비극”이라며 “이 소설이 20세기의 위대한 극작가였던 브레히트의 희곡을 읽거나, 다시 읽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쿠르상 100주년 수상작은 알뱅 미셀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 출판사는 올해 수상을 통해 공쿠르상을 11번째 거머쥐었고, 지난 10년 이후 3번째 수상이 된다. 이를 계기로 일간지 르몽드는 그동안 공쿠르상을 나눠 먹었던 ‘갈리그라쉴리유’ (3대 문학 출판사인 갈리마르, 쉐이유, 그라세) 시대가 끝나고, 알뱅 미셀의 위세가 커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4회 수상한 갈리마르와 경쟁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공쿠르상이 당초 예정을 깨고 다른 문학상에 앞서 수상자 발표를 낸 것에 대해 “애통할 일”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지만, 100주년 축제의 분위기에는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았다. 최소한 20만

부의 판매부수가 보장되는 공쿠르상 수상작답게 《브레히트의 정부》는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수상자 발표 다음날 필자가 간 동네 서점의 주인은 “진열장에 남은 한 권밖에 없다”면서도 그 책을 특별히 꺼내줬다. 그는 책값을 지불한 뒤 돌아서는 내 등 뒤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뭐 별로 뛰어나지 않아 실망했다”며 모래를 뿌렸다. 확실히, 파리에는 문학비평가가 너무 많다. 책방과 학교, 카페 등에 숨어 있던 그 술한 비평가들이 특히 공쿠르상 발표 직후 일제히 말문을 연다. 문학상의 축제 기능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

박해현 기자가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12월호부터는 '프랑스 문화계 소식'의 필진이 바뀝니다. 그동안 프랑스 문화계 소식을 전해준 박해현 기자께 감사드립니다.